

구글데이터를 통해 본 이탈리아 식품전망

파리지사

트렌드 예측을 벗어난 이탈리아의 소비심리

- 볼로냐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업체 네오티카(Neotica)에서 미국 홀푸드마켓의 트렌드 예측과 이탈리아 소비자성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구글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해본 결과,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홀푸드마켓이 예측한 '식용꽃이나 기능성버섯'에는 큰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기능성버섯을 응용한 중동요리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고추로 만든 매운 튀니지 양념장인 하리사(harissa)를 검색하는 이용자는 매달 평균 2,400명에 달하며 레바논 음식과 향신료의 일종인 카다멈(cardamom)은 각각 평균 1,600명, 15,000명의 이용자가 검색하고 있었다.
-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이 제시했던 2018년 식품트렌드를 보면 식용꽃, 단백질파우더, 기능성버섯 등이 식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며, 제품의 원산지 표기와 제조투명성, 채식요리, 과일, 콩, 채소, 곡물로 만든 스낵 및 간편식 등에 소비자가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2018 구글검색 키워드

① 두유

EU대법원이 지난해에 '우유'라는 명칭을 동물에서 나온 제품에 한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두유'의 키워드 검색량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글루텐 불내증, 비건, 베지테리언 등 우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두유는 월 평균 26,670명의 사용자가 검색하며 여전히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아몬드 우유, 쌀 우유, 귀리 우유, 헤이즐넛 우유, 케피어*, 강황 우유, 밀 우유 등도 상위 검색어로 집계됐다.

* 케피어(kefir) : 우유를 발효시킨 음료

② 과일주스·채소주스

주스검색 부문 1위는 석류의 차지였고 뒤를 이어 사과와 알로에가 검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소주스의 대표주자인 토마토주스 외에도 비트주스가 월 평균 880건, 양배추주스가 140건, 밀주스가 320건으로 검색어 순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음료와 관련된 검색어로는 생강과 알로에가 상위권이며, 지방분해 효능이 있고 디톡스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아가베음료를 비롯해 멕시코음료 및 브라질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검색순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③ 커피관련용품

최근 몇 년간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 커피머신 및 캡슐머신에 대한 검색량도 상당히 많다. 커피관련 키워드에서 최상위는 나폴리 커피브랜드인 '브루봉(Borbone)'이며 월평균 18,100명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커피, 도토리커피, 대추커피, 치커리커피, 오르쑈(Orzo), 대마초커피, 곡물커피 등의 검색 빈도로 볼 때 커피대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매우 값비싼 동물용변 커피(루왁커피)도 활발하게 검색되는 키워드이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보다는 호기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④ 밀가루 대체재

밀가루 대체재 연관 검색어로는 병아리콩 가루와 카뮤가루(kamut), 쌀가루, 곡물가루, 옥수수가루 등이 상위를 차지했고, 검색량은 많지 않지만 바퀴벌레가루가 월평균 480명, 타피오카가루(tapioca)가 980명, 곤약가루(konjac)가 570명이 검색해 새로운 대체재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⑤ 건강과 관련된 식품성분

건강과 직결된 유익한 성분들과 과다섭취로 인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성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혈압을 낮추는 성분'에 대한 검색량은 월평균 1,600건이고 당뇨환자에게 적합한 식단검색 또한 월평균 1,600건이나 된다. 단백질음식 검색이 매달 3,600건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살찌는 음식의 검색은 월 평균 2,900건으로 나타나 외모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불호 분명한 이탈리아인들의 취향파악 중요

- 미국의 식문화와 식품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니즈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만의 트렌드를 읽는 힘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소비에 있어 이탈리아인들은 호불호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 건강을 위해 이탈리아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두유, 석류주스, 병아리콩 가루 등 전통적인 건강식품에 애착을 보이고 있어 관련 식품을 통한 진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강황우유, 곤약가루 등 새로운 식품에 대한 호기심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발굴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